

社說

보궐선거 한풀이 場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지 한 달도 안됐다. 포천시장 보궐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자천타천으로 포천시장 보궐선거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무려 15명에 이른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천시장을 하고 싶어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포천시장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자리는 아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예정자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한풀이 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또 예비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않는 말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포천시장 보궐선거가 이전투구 양상으로 돌변해 가고 있다.

난립 후보들은 대부분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철새처럼 당적을 옮긴 사람들이 많다. 이들 출마예정자들은 '이번 보궐선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 '수입년 동안 지역에서 정치생활을 해 왔다'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선되도록 일조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어 출마할 뜻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포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恨도 많고 이유도 많다. 이들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출마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포천시장을 해야 한다는 타당한 이유가 없고 명분도 없다. 이들 출마예정자들은 한나라당 눈치를 보면서 국회의원 당선인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당선인을 압박해 자신이 공천을 받아

출마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풀이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다. 수년 혹은 수십년 동안 지역에서 정치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장을 한번은 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천시장직은 개인의 한풀이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지역에서 몇 년간 정치생활을 해 왔던 아니면 이번이 처음으로 출마하던 그것은 포천시장 출마요건이나 당선요건은 되지 않는다.

새로 선출되는 포천시장은 할 일이 많다.

무엇보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들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추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추진할 사업은 구체적인 일정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당선자는 물론 도의원과 시의원,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를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업무추진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포천시는 인근 지역에 비해 개발속도가 발전이 아주 지연되고 있다. 이처럼 포천시가 발전정체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지역의 앞날과 화합보다는 개인적 욕심이 강하기 때문이다.

보궐선거에서는 개인 영달과 욕심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앞날과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도 보궐선거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풀이 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8 새해설계 ⑧ 포천시의회 의원 이병욱

학교 수업시간에도 하늘과 땅에서 굉음으로 고통

“용역발주 · 특별위원회 대책마련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보장초등학교의 경우 하늘에는 헬기가 떠 있고 도로에는 탱크가 지나가며 굉음을 내고 있어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력테스트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성 매항리 등에 다녀왔다. 그곳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앞으로 관내 주둔 군부대인 8사단, 5군단, 6군단, 6사단 등 전체를 파악할 계획이다. 군부대가 있어서 이로 인한 것과 피해상황, 탄약고 등 전반적인 것을 조사할 계획이다.

포천시의회 이병욱(사진) 의원은 포천시의회 군부대 사격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월 경기개발연구원 용역을 발주했으며 포천시의 회도 함께 조사에 나서고 있다.

관내 영평훈련장, 승진훈련장, 원평사격장 등 군부대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는 한국전쟁이후 계속되고 있으나 이렇다할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장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등교거부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배가 아프고 힘들 살 때는 참고 지냈다. 훈련장에서 불발탄을 가져다가 고물을 팔아 살던 시절 한번에 10여명이 사망한 적도 있다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보궐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1998년 조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3선의원

인 이 의원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정보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게만 공유되는지 무소속인 의원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한탄강 댐 문제는 국회의원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일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되고 있다. 또 창수면 오거리에 있는 사격장이라도 없애 달라고 요청해도 요지부동이다.

최근 이 의원은 철원과 파주,

3~4개월 동안 집중 조사하여 문제해결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이번 포천시 조직개편시 하나의 단타계를 신설하여 이 문제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천신문사에 바라는 것은 학교주변과 야간이나 수업시간에 현장을 집중 취재하여 보도해 주기를 바라며 특히 영평1~3리, 영송리, 오기~3리, 운산리 등의 지역을 집중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의원은 최소한 수업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학부모들이 등교거부움직임을 보이는 데 이 지역 군부대 훈련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범죄없는 밝은 포천 만들자”

범죄예방위원회 제3대 하재인 회장 취임



정명학 포천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4월4일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포천시 지구회 제3대 하재인 회장이 취임했다.

지난 15일 용정회관에서 이강립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우형 도의원, 남궁종 포천시산업조합장, 김봉길 포천교육청 학무과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대 송순석 회장 임임식과 하재인 회장 취임식이 거행됐다.

취임사에서 하재인 신임 회장은 “송순석 회장은 지난 4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범죄예방위원회 포천시 지구회를 헌신적인 봉사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놓았다”면서 “송 회장의 큰 업적을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하 회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았이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60여명의 위원회 함께 소외받는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범죄 없는 밝은 포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보다 앞서 송순석 제2대 회장은 임임식에서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낳는다는 성인의 말처럼 빠르게 변하는 우리들의 주변은 많은 진실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부족했지만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범죄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을 구출해 주는 등 청소년 선도활동에 앞장선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있다.”

하수환 기자 forme85@paran.com

시민 건강 위해 황사마스크 배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4월1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지사장 정홍식)는 노약자에게 황사대비용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매년 봄철이면 기승을 부리는 황사는 흙먼지 외에 중금속과 화학물질 등이 섞여 있어 후두염, 천식,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노약자의 경우 피해가 더

포천시 인사

- ▶이광세 주민생활지원국장
- ▶이영재 건설도시국장
- ▶강병수 자치행정과장
- ▶노경만 의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 ▶안문중 영북면 ▶박주상 교통행정과 ▶배상철 환경위생과 ▶이한수 군내면 ▶이우석 내촌면 ▶원선경 일동면 ▶오혜진 가족여성과 ▶임인수 영북면 ▶장도연 산림복지과 ▶정우식 일동면 ▶한소연 민원과 ▶신 호 재난관리과 ▶김지영 이동면 ▶이두성 자치행정과 ▶김장근 건설과 ▶윤호열 문화체육과 ▶장재준 민원과 ▶김예희 세정과 ▶김주현 화현면 ▶정중숙 포천동 ▶조인경 산림복지과 ▶김운선 농축산과 ▶신현욱 농축산과 ▶정혜미 주민생활지원과 ▶박선경 공보관광담담당관실 (이상 4월11일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추진

포천시는 생활권 주변을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3억원을 투입하여 가산면 우금리 삼지공원 등 6개소에 3,630㎡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가 있는 쉼터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에는 1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화현면 지현리 하천부지 약2,000㎡를 중앙에 잔디광장이 있는 쉼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산책 및 소풍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군내면 하성북리 및 내촌면 내리 등 2개소 약 950㎡를 쉼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수환 기자 forme85@paran.com

양돈 HACCP 전산화 사업 추진

안전한 축산물 공급 위생관리 진단

포천시는 양돈 HACCP 전산화 사업을 추진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10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양돈 HACCP 전산화 사업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위생관리 진단을 위한 농장단계의 HACCP제도가 도입된 이후 양돈농가의 HACCP 인증 및 유지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사업으로, 평소 HACCP 인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와 HACCP 인증 이후에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HACCP는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 생산 및 가공 유통단계에서 인체에 위험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위생관리 제도로써, 생산-도축-가공-판매-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관리해야 할 위생요소를 차단하는 방법이 설정되어 있다.

하수환 기자 forme85@paran.com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포천신문사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로로: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훈: 주인정신(主人精神)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편집국 (031)542-1506
광고접수 (031)542-9888
구독신청 (031)542-9889
F A X (031)541-9117

인쇄인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준수요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포천신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 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4월 10일 ~ 4월 20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구독료 입금계좌 : 농협(585-17-004213) 예금주 : (주)포천신문사

최근발행현황

- 2008. 4. 10 포천신문 제409호 발행
- 2008. 4. 21 포천신문 제410호 발행
- 2008. 4. 30 포천신문 제411호 발행예정